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남희¹, 박선영^{2*}

¹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Nam-Hee Kim¹, Sun-Young Park^{2*}

¹College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Technology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é test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5.36점(7점 만점), 사회적지지 평균 4.13점(5점 만점), 회복탄력성 평균 2.68점(4점 만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있어 감성지능($r=.665, p<.001$)과 사회적지지($r=.495,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지지는 간호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beta=.464, p<.001$), 감성지능($\beta=.169, p=.004$), 학과적성($\beta=.162, p=.006$)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대해 사회적지지, 감성지능과 학과적성은 총 5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증대를 위해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학과적성을 고려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resilien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in student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228 student nurses from two colleges in B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ver. 21.0. The mean score for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level was 5.36 out of 7 points, 4.13 out of 5 point, and 2.68 out of 4 points, respective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665, p<.001$) and social support ($r=.495, p<.001$).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resilience in student nurses. The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were social support ($\beta=.464, p<.001$), emotional intelligence ($\beta=.169, p=.004$), and aptitude ($\beta=.162, p=.006$). Resilience explained 50.4% of the variance in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aptitude.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managers need to develop resilience programs and training for managing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nd aptitude.

Key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Resilience, Nursing Student, Aptitu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간호대학생은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전공학문, 교과 외 활동 등이 통합된 학습성과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Park(Busan Women's College)

Tel: +82-51-850-3179 email: mejong00@bwc.ac.kr

Received December 31, 2018

Revised January 19,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기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1]. 학업과정에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임상 적응능력도 배양해야 하며[2], 미래의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간호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졸업 후 복잡하고 급변하는 임상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3].

그러나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은 타 과에 비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4-5]. 이에 교수, 가족 선배와 후배 동급생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라 하며[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7].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최근 연구되고 있는 관심 변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최근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 훈련 받는 간호대학생은 환자, 보호자,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실한 공감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

이렇듯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임상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따른 의사결정, 정확하고도 신속한 업무수행,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노출되는데[8],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며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인 저항력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다[9]. 비슷한 개념으로 환경과 개인의 상호요인이 되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 상황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말한다[10].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외적 자원이라면 회복탄력성은 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능동적이고 유연

한 삶의 태도를 거쳐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11].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성숙한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의미 있는 개념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활적응[12,13], 자기 통제력[12], 스트레스[14,15], 우울[14], 정서지능[16], 심리적 안녕감[16] 등이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내적 자원인 사회적지지,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간의 관계와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내적자원을 강화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Lee 등[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11개의 예측요인을 두어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91명이 요구되어 탈락을 20%를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230부로 100%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미기재 등으로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28부를 최종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17]가 개발한 도구를 Lim[18]이 번역하여 사용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기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조절 4문항 그리고 감성의 활용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Park[6]이 개발 한 척도를 Yu와 Seol[1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랑과 이해 및 격려와 신뢰 그리고 관심 등의 ‘정서적지지’ 7문항, 칭찬이나 인정 등의 ‘평가적지지’ 6문항,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지지’ 6문항,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지지’ 6문항의 총 4개 영역,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u & Seol[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7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미국의 Connor와 Davidson [20]이 개발한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ck 등[21]이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도

구(K-CD-RIS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강인함, 내내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 분야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배점하며, 도구의 측정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9, Back 등[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 대상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서면을 통해 본인의 자발의지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 결과의 익명이 보장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며, 연구결과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수거 시에는 개인정보를 위해 개별봉투에 밀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Independent t-test, One way-ANOVA, Scheffé's test 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 5) 감성지능,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와 환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94.7%(216명), 남성이 5.3%(12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3.4세였으며, 대상자의 간호학과 적성여부는 잘 맞는 경우가 41.7%(95명)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 경우가 78.5%(179명),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49.1% (112명)로 가장 많았다. 수면의 질은 보통인 경우가 43.9%(100명)로 가장 많았고, 학과만족도는 높은 경우가 46.1%(114명)로 가장 높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5.36점(7점 만점)나 타났고, 하위영역으로 자기의 감성이해5.54점, 인의 감성이해 5.70점, 감성의 조절 4.13점, 감성의 활용 4.23점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는 4.1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4.19점, 평가적지지 4.17점, 정보적지지 4.10점, 물질적지지 4.07점이었다. 회복탄력성 정도는 2.68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

역으로 강인함 2.50점, 인내력 2.80점, 낙관주의 2.74점, 지지 3.16점, 영성 2.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연령($F=3.08, p=0.48$), 학과적성($F=15.06, p<.001$), 스트레스 해소($t=4.08, p<.001$), 건강상태($F=5.03, p=.007$), 수면의 질($F=7.08, p<.001$), 학과만족도($F=14.05, p<.0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2세 미만인 경우가 22세인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적성은 매우 높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았고, 높은 경우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상태는 좋은 경우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취미가 주 4회 이상인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수면의 질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만족도는 높은 경우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Table 1.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esilience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12(5.3)	2.73±0.50	0.397	.692
	Female	216(94.7)	2.70±0.48		
Age(years)(M±SD) (23.40±5.52)	<22 ^a	105(50.0)	2.75±0.47	3.080	.048
	22 ^b	65(37.3)	2.56±0.50		
	≥23 ^c	58(12.7)	2.68±0.44		
Aptitude	Very High ^a	29(12.7)	3.09±0.39	15.06	<.001
	High ^b	95(41.7)	2.75±0.42		
	Moderate ^c	76(33.3)	2.54±0.43		
	Low ^d	28(12.3)	2.42±0.57		
Relieve stress	Yes	179(78.5)	2.75±0.44	4.08	<.001
	No	49(21.5)	2.44±0.53		
Health status	Good ^a	97(42.5)	2.79±0.47	5.03	.007
	Moderate ^b	112(49.1)	2.62±0.46		
	Bad ^c	19(8.3)	2.49±0.54		
Quality of sleep	Good ^a	66(28.9)	2.83±0.47	7.08	<.001
	Moderate ^b	100(43.9)	2.67±0.47		
	Bad ^c	62(27.2)	2.52±0.45		
Satisfaction of major	High ^a	114(46.1)	2.83±0.46	14.05	<.001
	Moderate ^b	85(28.5)	2.56±0.41		
	Low ^c	29(25.4)	2.42±0.53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resilience of the subjects (N=228)

Variables	M±SD	Min	Max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5.36±0.80	2.44	7.00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self	5.54±0.99	2.25	7.00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others	5.70±0.86	2.25	7.00	1-7
Emotional control	4.13±0.59	2.25	5.00	1-7
Emotional use	4.23±0.56	2.75	5.00	1-7
Social Support	4.13±0.54	2.40	5.00	1-5
Emotional	4.19±0.57	2.43	5.00	1-5
Evaluative	4.17±0.57	2.33	5.00	1-5
Informative	4.10±0.59	2.67	5.00	1-5
Materialistic	4.07±0.64	2.17	5.00	1-5
Resilience	2.68±0.48	1.24	4.00	0-4
Strength	2.50±0.59	0.89	4.00	0-4
Sufferance	2.80±0.52	1.38	4.00	0-4
Optimistic	2.74±0.60	1.25	4.25	0-4
Support	3.15±0.63	1.00	4.50	0-4
Spirituality	2.40±0.75	0.50	4.00	0-4

Table 3.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resilience (N=228)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p)	Social Support r(p)	Resilienc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573(<.001)	.665(<.001)
Emotional understanding of self		.502(<.001)	.505(<.001)
Emotional understanding of others		.499(<.001)	.401(<.001)
Emotional control		.917(<.001)	.467(<.001)
Emotional use		.894(<.001)	.374(<.001)
Social Support	.573(<.001)	1	.495(<.001)
Emotional	.538(<.001)		.439(<.001)
Evaluative	.549(<.001)		.461(<.001)
Informative	.506(<.001)		.478(<.001)
Materialistic	.504(<.001)		.435(<.001)
Resilience	.665(<.001)	.495(<.001)	1
Strength	.616(<.001)	.391(<.001)	
Sufferance	.596(<.001)	.447(<.001)	
Optimistic	.488(<.001)	.400(<.001)	
Support	.450(<.001)	.472(<.001)	
Spirituality	.323(<.001)	.290(<.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the participants (N=22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38	.297		3.269	.001
Emotional Intelligence	.150	.051	.169	2.942	.004
Social Support	.279	.037	.464	7.453	<.001
Aptitude	.089	.032	.162	2.758	.006

R²=.524, Adj. R²=.504, F=26.645, p<.001

3.4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감성지능($r=.665, p<.001$), 사회적지지($r=.495, p<.001$)는 회복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감성지능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감성지능($r=.57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 사회적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던 연령, 적성, 스트레스해소, 건강상태, 수면의 질, 학과만족도 간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112로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562~.957의 범위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45~1.778의 범위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beta=.464, p<.001$)였으며, 다음으로 감성지능($\beta=.169, p=.004$), 적성($\beta=.162, p=.006$)순으로 이들 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50.4%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정도를 알아보고,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5.3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2]의 5.17점(7점 만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도

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3]의 3.59점(5점 만점/7점 변환시 5.03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1]의 3.57점(5점 만점/7점 변환시 5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와 도구의 차이로 엄밀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감성지능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임상실습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를 경험하게 되는 3, 4학년 학생의 경우 성지능 능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학년별 감성지능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평균 4.13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24]의 3.90점(5점 만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국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5]의 3.72점(5점 만점)보다 본 연구 결과가 높았으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6]의 4.11점(5점 만점)의 결과와 본 연구는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비교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학년의 경우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를 대비한 전공교과목의 학습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사회적지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다고 인식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학문의 특성상 학년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세부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 2.68점(4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2]의 3.56점(5점 만점),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14]의 3.3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27] 3.56점(5점 만점)보다 본 연구결과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28]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3.28점(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연구에서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과, 취업 등의 경험을 하면서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등이 변화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평범한 특성[29]으로 노력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는 학생들을 둘러싼 어떤 세부적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는 학과적성($F=15.06, p<.001$), 스트레스 해소($t=4.08, p<.001$), 건강상태($F=5.03, p=.007$), 수면의 질($F=7.08, p<.001$), 학과만족($F=14.0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2],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14],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15]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는 일치하였다. 학과적성은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15]의 연구에서도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경우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5]의 연구에서도 입학동기가 적성 및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취업보장으로 입학한 경우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는 일치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있는 가변적 요소로 일의 수행과 신체·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30],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제 특성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 학과적성의 순으로 전체 설명력은 50.4%로 나타났다. [16]의 연구에서 정서지능($\beta=.39,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온 결과와 본 연구는 일치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학생활에서부터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 등의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와 회

복탄력성의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1]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beta=.71, p<.001$)는 회복탄력성에 49.7%,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2]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beta=.64, p<.001$)는 회복탄력성에 41.5%의 설명력을 나타낸 결과보다 본 연구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나아가는 목표의 방향이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에 선·후배간의 다양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실습병원의 졸업선배와의 만남 등을 통해 정보적, 정서적 지지 정도가 충족되므로 비교적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취업, 국가고시 준비 등의 일정이 4년의 교육과정 내에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정보적 지지가 필요하며, 더욱이 특정한 시기에 소진, 임상실습스트레스, 우울 등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 체계는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낙관성 등의 긍정요소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사회적지지 탐색을 통한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기에 앞서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과, 비교과 과정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감성지능에 대한 학년별 비교 연구를 통해 특성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맞춤형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학과적성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650-658,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3]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49-557,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49>
- [4] C. T. Beck, "Burnou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vol. 20, pp. 19-23, 1995.
- [5] L. Warbah, M. Sathiyaseelan, C. Vijayakumar, B. Vasantharaj, S. Russell, and K. S. Jacob,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27, pp. 597-601,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6.09.002>
- [6]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7] G. W. Lee, I. O.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14, no. 2, pp. 15-27, 2013.
- [8]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9]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c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3.
- [10]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40-250, 2009.
- [11] K. H. Lee, J. S. So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6, no. 1, pp. 17-25,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1.17>
- [12] S. Y. Kim, "The Influence of Self - 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1, pp. 253-262, 2018.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53>
- [13] J. S. Le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14] H. H. Park, "The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Resilience on Cognitive Failur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4, pp. 323-333, 2018.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6.12.4.323>
- [15] S. Y. Jang, "Influence of Stress and Resilience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30, no. 3, pp. 1075-1088, 201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6.30.3.1075>
- [16] Y. E. Lee, E. Y. Kim, S. Y. Park,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nd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385-393,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 [17]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8] J. S. L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emotional perception and behavior of employee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4.
- [19] E. K. Yu, H. S. Seol,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vol. 16, no. 1, pp. 155-184, 2015.
- [20] Connor, K. M, Davidson, J. R,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DOI: <https://doi.org/10.1002/da.10113>
- [21] H. S. Bac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Master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2010.
- [22] J. M. Ko,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5, no.2, pp.120-12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2.120>
- [23] S. H. Park, Y. K. Byun, "Effectors of em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256-26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56>

- [24] K. H. Kim,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3, pp. 399-40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399>
- [25] Y. G. Noh, Y. S. Lee, "Influence of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1, pp. 633-643,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11.633>
- [26] W. H. Jun, M. J. Jo, H.S. Na,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3, pp.219-228,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3.219>
- [27] Y. E. Lee, Y. N. Jang,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8, pp. 646-657,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646>
- [28] M. H. Nam, O. H.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4, pp.298-306.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29]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2, pp. 45-67, 2006.
- [30] C. K. Lee, Y. S. Park, "The Study of Eval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517-52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517>
- [31] J. H. L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do, 2017.
- [32] H. S.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Seoul, 2018.
- [33] H. H. Cho, J. M. Kang, "Effect of resilience, Coping, and Mental health on burnout of student nurses.", The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24, no.2, pp.199-207. 2018.
DOI: <https://doi.org/10.4094/chnr.2018.24.2.199>

김 남 희(Nam-Hee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만성 및 재활간호

박 선 영(Sun-You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